
2023년 제10차
「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회의록



문화기반과

□ 심의개요

- 일 시 : 2023. 11. 23.(목) 14:00 ~ 16:30
- 장 소 : 시청 영상회의실(본관 2층)
- 참 석 : 위원 11명
- 주요내용 : 미술작품의 가격, 예술성, 건축물과의 조화 등을 심의
- 심의안건 : 6개소 9작품(조각 7, 회화 2 / 신규 9, 재심의 0)

□ 심의결과

- 9작품 중 가결 7작품(원안 5, 조건부 2), 부결 2작품

연 번		설치장소	종류	작 품 명	이미지	심의결과		비고
건물	작품					가결	부결	
1	1	운남동 1710-2	조각	Natural flow			○	
	2		조각	Love for you			○	
2	3	서구 불로동 검단지구 AA23BL	조각	Sweet Love is Superior 달콤한 사랑이 최고		○		조건부
3	4	부평구 부평동 179-1 외 2필지	회화	빛과 갯벌		○		
	5		회화	영원		○		
4	6	미추홀구 학익2동 290-1번지 일대	조각	행복을 꿈꾸는 가족		○		
5	7	미추홀구 학익1동 220번지 일대	조각	에너지... 생동하는 생명체 SH25-01		○		
	8		조각	By the Wind		○		조건부
6	9	중구 유동 5-5	조각	나의 봄		○		

□ 회의록

사회자 안녕하세요? 문화기반팀장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을 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 제10차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참석하실 위원님을 좌석 순서로 소개하겠습니다. ... 오늘 참석 인원은 총 열한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심의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하실 작품은 총 6개소, 9작품이며 조각 7작품, 회화 2작품입니다. 그리고 9점 모두 신규 작품입니다. 전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안건 총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점수표 작성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외부에 드린 유인물 중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채점표를 보시면 각 5개 항목의 점수를 합산하여 100점이 만점이며, 70점 이상이면 적합, 70점 미만이면 부적합으로 “적합” 판정이 과반수인 경우에 해당 작품이 가결됩니다. 채점 시 70점 미만으로 부적합 판정을 내리실 경우에는 채점표 하단 비고란에 그 사유를 분야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과반수 이상 찬성하여 가결된 작품 중 특별히 안전성, 도시미관 등의 사유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건부 가결” 또는 “권고사항”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집계 후에 위원님이 제시한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을 통해서 원안 가결할 것인지, 조건부 또는 권고 가결을 할 것인지에 대하여 결정을 하게 되며, 해당 사유에 대한 의견 동의가 과반수 이상이면 가결됩니다. 참고로 “권고사항”은 군구와 심의신청인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종료되지만, “조건부 가결”의 경우에는 향후 조건부 이행 여부를 심의위원님들께 서류를 통해 재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심의 내용을 녹음하고 회의록을 작성하고 있는데, 정확한 회의록 작성

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마이크를 가까이 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책상 위에 있는 서약서의 내용처럼 오늘 심의된 결과 등 제반사항에 대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 2(청렴서약서 제출)에 규정된 청렴서약서 내용과 같이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이나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인천시 건축물 미술 작품 관련 정보를 게시한 별도의 웹사이트 구축에 대한 요청이 있어 왔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지난 15일에 인천시 홈페이지에 웹사이트 서비스를 개시를 시작하였습니다. 심의 관련 서식, 결과 보고, 회의록 등 관련 정보들에 대한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향상되었으니 위원님들께서도 주변에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과 함께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겠습니다.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위원장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아시는 것처럼 건축물 미술작품은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며 예술가들에게는 창작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인의 전공 분야 뿐만 아니라 주변과의 조화와 공공 미술로서의 역할 등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시어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좋은 작품이 선정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에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위원 총 12명 중 11명이 참석하시어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 10차 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오늘 회의 진행 순서는 작품채점, 집계 결과발표, 심의의결서 작성, 폐회선언 순입니다. 작품 채점 순서는 작품별로 심의도서 검토 후 공개질의, 위원별 채점 순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제10차 회의에서는 총 9 작품을 심의하겠습니다. 순서는 신규 안전 먼저 그리고 재심의 안전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작품 <Natural flow>에 대해 사회자에게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운남동 1710-2

1) <Natural flow>

사회자 1번과 2번은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자,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조금씩 이렇게 넘겨주시죠, 다른 뷰도 좀 볼 수 있도록. 그 설치 장소가 나와 있는 걸 한번 보여주시죠, 예.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단 제가 전체적인 관련된 부분을 한번 봤을 때 지금 여기에 그 조경 계획 도면을 보면 대형 소나무통, 이제 큰 **틀에 나무가 들어가는 그 위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게 슬라브 위에서 이루어지고, 인공 지반에서 하다 보니까 토심이 그렇게 많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렇다 보면 이 녹지는 저렇게 평면이 아니라 ** 조성될 거라고 좀 판단을 하고요. 그러면서 이 위치에 기초 도면이 좀 빠져 있는 상황에서 평면 그림을 보면 2,040에서 2,100인가라고 지금 표현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그래픽 상에서 저 원형 구 가지고 또 표현이 안 돼요, 그

표기가. 그래서 이 전반적으로 또 그 원형 구가 정확하게 또 주 작품 앞에 있는지, 옆에 있는지 그 표현들이 지금 그래픽마다 그림이 좀 다 틀리다라는 것 좀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조명에 대한 부분이 지금 명확하게 지금 돼 있지를 않아요. 지금 저 개폐부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제 세 개를 다 집어넣겠다고 아마 표현을 하신 것 같은데 이런 거를 어떻게 해야 될 건지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 도면에 대한 규격이 제대로 안 나와 있어서 저 600, 그림 상황으로 나와 있을 때 그 그림이 그러니까 그 작품에 조명이 표시가 될지, 그게 조금 의아스럽고요. 왜 조명을 세 개를 넣는지, 뭐 밝기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색상을 별도로 하려고 해서 그런 건지 그것도 좀 의문입니다. 음,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나 더 얘기를 드리면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자기 유사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분이 다른 데서는 저거를 3개 있는 것도 지금 오늘 이 작품에는 하나만 지금 떼어내서 이제 심의를 들어온 상황인데 그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 그림 저 조형물에 있는 조그마한 라이트들이 다 태양광 의해서 점등이 된다는 말인가요? 그거를 정확히 모르겠네요. 태양광이 효력이 있나요? 위원님들 보신 거 있으면.

○○○ 저 작품은 태양광으로 밝히는 등이 아닙니다. 전원을 연결하게 돼 있는 등인데요. 또 태양광으로 저렇게 지금 작품에 나와 있는 그 빛을 연출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자 혹시 그 밖에 관계자가 왔는지 확인 좀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관계자께서 오셔가지고, 잠깐 질문하는 시간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작가분 아니시죠?

관계자1

예. 작품 보시면 지금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들어져 있는 작품인데 안 쪽에는, 작품 안에는 그 지금 기둥부 되는 3개의 작품이 그 조명이 들어가고 구 안에는 1개의 조명이 들어가서 LED 조명으로 그 LED의 각 시간에 따라서 그 시간이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을 기본으로 해서 조명 색깔이 변하는 그런 거고요. 그리고 지금 태양광 조명은 바닥에 있는 바닥 등을 태양광으로도 표현할 수 있고 그리고 바닥에 지중등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 그 부분을 나타낸 거고, 그 바닥 안에 그 내부 조명은 LED 조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낮이랑 밤에 그 조형물 자체가 전혀 다른 느낌을 선사할 수 있는 그런 조명으로 구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조명은 지금 기본 형태에 보시면 타공이 되어 있어서 그 빛이 새어나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그 색상이 전혀 다른 형태로 표현될 수 있는 그러한 작품입니다.

○○○

그럼 타이머 같은 게 적재되는 건가요?

관계자1

예, 그렇습니다. 타이머가 설치되어 있어서 시간에 따라서 빛이 전혀 다른 색깔로 표현되어 있고 그리고 기둥 부분에 개폐구가 있어서 향후에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A/S 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위원장

뭐 따로 또 질문하실 거 위원님들 있으세요?

○○○

어, 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 21페이지 보면은 작품 고정 방법에 대해서 질의 드리려고 하거든요. 여기가 영종도 특성상 바람도 되게 많이 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서 이제 전단력을 많이 받게 되거든요, 제품 하중에 따라서. 그러면은 21번에서는 베이스 플레이트, 앵커 볼트라고 돼 있는데 이 지금 그림상은 이거는 칼블럭 형태거든요. 앵커 볼트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기초 콘크리트 타설 할 때 철제를 같이 매립을 해서 그래야 앵커 볼트 하고, 기초 콘크리트하고 이제 같이 일체화가 되는 게 중요한 건데, 지금 이 그림은 그냥 이미 기초

콘크리트 타설한 상태에서, 천공한 상태에서 이제 칼블럭을 박아서 케미컬 앵커를 쏘겠다는 건데, 이거는 그 밑에 첨부했던 그림 같은 건 에어컨 실외기나 간단한 거 같은 거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지금 이 작품 같은 거는 좀 하중도 있고 그러면 전단력이 클 텐데 이거에 대해서 안정성 확보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관계자1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바람도 많이 불고, 길이가 지금 4m인 작품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아무래도 좀 상하로 높은 작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작품을 연장을 해서 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초 타설할 때 베이스판을 묻어야 되고요. 베이스판 묻어서 그리고 작품도 연장을 해서 그 안전성에 대해서는 현장 상황에 따라서 충분히 확보를 할 거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상황에 따라서 할 건데 이게 L앵커나 이런 게 아니라 저희가 베이스판을 기초 타설 할 때 반드시 묻을 겁니다. 기초 타설 할 때 베이스판 묻고, 그 베이스판이랑 작품이 일체화될 수 있게 그렇게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〇〇〇 그 하중을 받을 때 힘을 견디는 거는 베이스판이 아니라 앵커 볼트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L앵커를 묻어가지고 한다는 그런 것은

관계자1 예, L앵커 묻어서...

〇〇〇 L앵커는 그대로 안 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베이스판 놓고 타공 해서 하겠다는 거는 저도 좀 ...

관계자1 아니요, 베이스판 묻을 때 L앵커 심어서요. L앵커와 같이 교정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〇〇〇 그럼 이거는 수정을 한다는 뜻인가요?

관계자1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드시 L앵커 작업하겠습니다.

〇〇〇 저 질문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서류 자체가 그거 하겠다는

예정이지 해가지고 들어온 서류가 아니잖아요? 그게 여기 설명서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심의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L앵커를 박고 난 다음에 심의도서가 들어와야지 우리가 통과를 시켜주든지, 말든지 할 텐데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서류가 들어왔으니 이것은 서류를 다시 반려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갖고, 만약에 이거 갖고 심의를 통과를 시켜가지고 만약에 설치를 했어요. 그러면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그 확인을 갖다가 우리는 통과를 시켜왔는데 하겠다고 해놓고 안 해놓으면 어떡합니까?

관계자1 음, 그러면 작품을 설치할 때 L앵커 심는 거를 사진으로 반드시 첨부해서 제출을 하는 건 어떨지 싶습니다.

○○○ 그거는 심의가 통과되고 난 다음에 얘기죠.

○○○ 그건 조건부로 하면 됩니다. 조건부로 해가지고 L앵커 한 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진을 첨부해서 그렇게 하라고, 제출하라고 하면

○○○ 여기서 통과 가부는 여기가 아니라 조건부로 만약에 통과된다면, 조건부로 통과된다 하더라도 조건부를 받아가지고, 그 서류를 다시 제출해서 저희가 그 서류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고 난 다음에 통과를 시켜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위원장 네. 제가 잠깐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심의하는 내용이 그 안전성에만 있는 게 아니고, 조형성도 있고 다른 게 많이 있으니까. 만약에 다른 부문에서 모두 다 합격점을 받는다면 조건부는 확실히 지켜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만약에 조형 자체가 이제 통과가 되면 그때는 조건을 달아서 진행하는 걸로 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안전성에는 문제가 있는 게 지금 드러났으니까 작품 전체에 대한 합격 여부를 우리가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합격이 안 되면 다음에는 이제 그걸 조건을 갖춰서 들어와야 되고, 통과가 되면 다른

요소들 덕분에 통과가 되면, 그거를 이제 조건부로 저희 위원님들이 회의에서 조건부로 달아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관계자1 네.

○○○ 지금 제가 봤을 때 질의를 받았으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이 서류 자체가 심의가 들어오면 안 되는 요소라는 얘기죠.

○○○ 아니요. 잘못된 점이 있더라도 심의를 받을 수 있는 거니까요.

○○○ 아, 제, 제가 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이해는 되는데 제가 좀 의문이 돼서 얘기했던 거는 그 명기는 잘 해놨어요. 베이스 플레이트랑 앵커 볼트는 해놨는데 단지 그림 상에 좀 다른 게 칼블럭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밑에 있는 첨부 사진이 좀 오류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거지. 이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예 잘못됐던 내용을 했던 건 아니고, 이쪽에서 말했던 거는 좀 그림상의 착오가 있다 보니까 저는 확인차 물어봤던 거지, 뭐 이게 심의도서가 잘못되거나 그런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아, 그리고 예를 들면 오늘 관계자분이 참석하는 게 필수가 아니고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는데 오늘 만약에 준비돼서 들어오신 건데, 만약에 들어오시지 못했다면 저희들이 그런 부족한 점을 지적하고, 전체를 심사해 가지고 합격이 됐는데 ‘이거는 부족하다.’ 그럼 우리가 그걸 조건부로 달게 되는 거니까 오늘 그냥 들어와서, 게서 가지고 들어와서 지금 그걸 수정하는 식으로 말씀하신 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작품을 통과시킬 것인가, 아닐 것인가를 관계자분 없는 상태에서 심사를 하면 되겠습니다.

○○○ 네.

관계자1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네, 이제 나가보시죠.

관계자1 네.

○○○ 아니, 위원장님. 같은 위치이면 두 번째 작품 잠깐 물어도 괜찮을까요?
같은 문제라면.

○○○ 같은 지역이니까.

위원장 네.

○○○ 같은 거죠. 아니, 왜냐면 저희가 질의 드린 게 똑같거든요. 두 번째 작품, 그 이 작품도 똑같아요, 이게. 그 그림상에도 앵커 볼트 하고 그게 돼 있는데 이거는 화강석 재질이다 보니까, 더 하중이 크다 보니까 같은 걸 좀 질의를 하면.

위원장 두 번째 작품은 그러면... 어디 밖에 잠깐 게시라고 그럴까요?

○○○ 네.

위원장 첫 번째 작품 심사하고, 두 번째 작품도 잠깐 부르면 들어와 주세요.

관계자1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네, 나가 게시기 바랍니다.

관계자1 네.

○○○ 저는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위원님, 이런 의견을 어, 지금 심의도서가 제대로 안 돼 있어요. 중요한 건 이 밑에 주기란에다가 ‘현장 상황에 따라서 시공방법이, 재질이 바뀔 수 있다.’ 라고 단서를 달아놨어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아니, 저는 심의를 스테인으로 받았는데 스테인리스로 받았는데 ‘현장 여건에 따라서 철로 바꾸겠습니다. 갈바판으로 바꾸겠습니다.’ 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내용이죠. 그 향후에 설치를 할 때 우리는 심의 때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저 조건에 대해서 똑같습니더라는... 아니면 이거, 이거는 심의도서를 만드는 내용 중에 가장 기본이 지금 안 돼 있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는데요.

위원장 네, 의견 감사합니다. 그런 의견을 지금 제시하면서 저희들이 심의하는 거니까 그런 의견 충분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〇〇 저도 이제 작품 설치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 그 현장 상황이 막 흠을 갑자기 덮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네트워크가 잘 안 되는 경우에는 흠을 갑자기 아래로 밑으로 막 파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현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은 그 단서를 달은 것,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시행사에 따라, 뭐 따라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게 네트워크가 서로 안 되면 자기주장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그렇게 얘기한 것 같고, 아까 앵커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사실상 작가가 자기 작품을 뭐 떨어뜨리거나 파괴 되게 하려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냥 바람의 저항에 넘어지게 그렇게 설치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런 경우는 조건부로 얘기를 하고. 그런 것이 저 작품이 그거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어떤 조형성이나, 색깔이나 어떤 거기에 따른 어떤 분위기 변화되는 이런 것들이 또 다른 어떤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오히려 좀 더 저는 좀 높이 평가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조건부로 해서 이렇게 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리고 아까 그 뒤에 있는 하트 작품도 L형 앵커로 다시 그렇게 해서, 두께도 좀 이렇게 보강을 해서, 그렇게 하면 아무, 하중에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〇〇〇 예, 종합적으로 심사를 하는 거니까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전성 뿐만 아니라 작품 조형성까지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그 결과가 합격점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어떤 게 조건부로 들어가야 되냐라는 건 그 향후에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〇〇〇 하나 지금 그 이분의 작품이 다른 곳에서 그 지금 그림상에도 나와 있

지만 3개가 지금 하나의 작품이었는데, 그중에 하나를 떼서 지금 작품이 들어왔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그거를, 그게 무슨 말인지 정확히 모르겠거든요. 한번 이미지를.

○○○ 지금 저 그림 상에서 보면 지금 어디에 아마 시공이 됐던 것 같아요. 지금 저렇게 지금 다른 장소에서 아마 저 3개, 그러니까 같은 내용의 작품을 지금 여러 개 중에 지금 뭐 저희 그 이번 심의에 들어와 있는 건 하나만 지금 작품을 놓은 상황이에요. 이랬을 때 이 작품이 독창성이나 뭐 어떤 작가에게 창작성이 있느냐라고 판단할 수 있는지.

○○○ 작품이 지금 그림 상에는 지금 같은 내용의 작품을 3개하고 구, 이렇게 지금 표현이 돼 있는 걸 지금 이 작품에서는 저기서 하나만 떼다가 지금 작품으로 지금 출품을 한 거잖아요. 이랬을 때 이런 문제가 없는지.

○○○ 심의서류에 이분이 설치한 작품이 있어요.

○○○ 아, 똑같은 게요?

○○○ 여기에는 지금 저렇게 그 주 작품이 3개에다가 구가 하나 있는. 저 사진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 네, 네.

○○○ 그거하고 지금 똑같은 내용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만 떼다가 지금 작품을 출품을 한 거예요. 그럼 저랬을 때 그러면 이게 어떤 작가의 창작성을 볼 수 있느냐?

○○○ 근데 지금 이 작품을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이거는 금액 때문에 아마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랬을 때 이 작품을 그냥 작가에 대한 독창적인 작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지. 자기 유사에 대한 그런 거를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아, 그러면. 저는 이제 오랫동안 현장에서 작업을 해온 사람으로서 한

번 여기 한번 여쭙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쉽게 여러분도 그림을 전공하지 않은 분들도 다 아는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여러 군데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원작이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 ‘지옥의 문’이라는 큰 작품의 원형은 50cm입니다, 원래는. 50cm인데 그거를 다시 굉장히 이렇게 크게 작품으로 해서 세계 여러 군데 있거든요. 그리고 ‘칼레의 시민’ 같은 경우 또 같은 작품을 그대로 그 브론즈를 중심으로 해서 17번까지 떠냈어요, 똑같은 작품을.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아는 혹시 광화문 신문로 쪽에 홍국생명 앞에 서 있는 보롭스키에 ‘망치질 하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굉장히 크게 서 있죠. 작은 것들이 스위스 바젤에도 서 있고, 뉴욕에도 서 있고, 세계 곳곳에 서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거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과연 그것도 용납이 안 될까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이렇게 생각을 좀 많이 해볼 문제인데, 저런 거를 작가의 시그니처로 볼 것이냐. 아니면 뭐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도 일종의 자기 카피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지금 텍스트에 나와 있지를 않거든요, 어떤 게 정답인지. 그래서 그거는 굳이 뭐 이렇게, 개인적인 그런 소견에 좀 맡기는 게 어떤지 그렇게 싶어요. 왜냐면 충분히 작품을 높이 세울 때 뭐 베이스판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고려될 만한 문제들이거든요. 작가도 물론 생각을 많이 하지만 협의를 안 했으면, 작가의 실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뭐, 문제 제기를 충분히 하시는데 과연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세 작품인데 띄워서 이렇게 한 작품을 했다. 과연 거기에도 문제가 있는가는 사실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왜냐하면 저도 시기 작품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한 작품을 뭐 이렇게 30개, 100개씩 이렇게 뜨려고 생각 중인데 그래서 한꺼번에 이미지를 하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런 걸 어떻게 할 것이냐. 굉장히 어려운 문제일 것 같아요.

위원장

네. 심의위원 분들이 대조적인 의견을 내시는 거는 심의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저는 보고요. 뭐, 어느 한 분이 얘기해서 다 거기에 쏠리는 것보다는 각각 자기 의견을 갖고 있다는 게 필요하고,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는 이제 본인의 의견을 이제 말씀하신 거니까 이제 말씀 안 하시고 듣고 계신 분들은 이제 자율적으로 생각하셔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한쪽으로 어떻게 몰고 가려고 의견을 주시는 건 아니니까요. 각각의 생각이나 태도와 관점이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점수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

어, 지금 제가 안전 쪽에서 지금 참석하긴 했는데, 사실 구조적인 안전과 관련돼서 아니면 주변에 있는 건축물과의 조형성 같은 것들을 바라보는 형태로 지금 참석을 했습니다만 광주 오포에 설치되어 있는 저 3개의 작품, 3개로 구성되는 작품하고요. 이 작품하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거를 똑같이 봤었는데 지금 광주 오포에다 설치해놓은 것은 기본적으로 외형에 색이 입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쪽에서 핀 조명이 빠져나온 형태고요. 지금 현재 이 인천에다가 제시한 작품은 안쪽에 LED 조명의 색깔을 바꿔가지고 표현을 바꾼다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는 내부에다가 LED 조명 색깔을 바꾼다고 해서 저 광주 오포에다가 설치해놓은 그런 형태로 표면에 색감이 표현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작품에서 제시되어 있는 이미지를 보면 광주 오포에서 해놓은 것처럼 외부에다가 색을 입혀놓은 것처럼 하면서 빛을 뿜아내는 형태로 보이거든요. 결과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작가가 의도하고자 했던 LED 조명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저기 나와 있는 이미지를 구현할 수 없다라는 그런 것들을 좀 보셔야... 미술 작품 심의를 하고 계시니까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안전은 사실 저희가 권장사항을 하든지, 추가로 의견을 주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술성이라든가 저런 걸 본다면 이 작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다르게 표현돼 있다라는 것을 보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또 의견 특별히 없으시면 채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채점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 점 중)

1. 윤남동 1710-2

2) <Love for you>

위원장 자, 다음으로 2번 <Love for you>에 대해서 사회자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예, 2번 작품은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자, 위원님들께서는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 오랜만에 돌 작품을 보는 것 같아요. 요즘 보통 다 스테인이나 알루미늄으로 많이 하는데 브론즈 값은 너무 비싸고. 근데 돌이 사실 되게 따뜻하잖아요, 그리고 오래 가고. 근데 조금 형태가 좀 하트가 약간 좀 촌스럽고 원래 좀 식상하긴 한데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 따뜻해 보입니다.

위원장 네, 또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 근데 돌 작업이기도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그 작품 가격도 그렇게 높지 않아서 저도 이제 웬만하면 괜찮겠다 싶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형태도 굉장히 너무 지루하고 식상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트라는 게 그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형태이긴 하나 지금 기존에 너

무 많은 작품들이 그리고 작품성을 논할 가치도 없는 그런 형태의 작품들이 이미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하트 형태도 이거는 되게 지루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조형물을 많이 하신 작가님이신데 사실은 저는 약간 의구심이 드는 게 같은 작가가 많이 하시는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작업들 이렇게 보면 물론 그 작업이 좀 다르기는 하지만 기존의 작업들 이렇게 보면 이분의 시그니처처럼 그러한 정체성을 나타내는 작업들이예요. 그래서 보면 ‘아, 누구 작품이구나.’ 이렇게 아는 정도인데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는 너무 평이하고 그 이 작가의 정체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아마추어가 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

심의서에 그 규격을 표시를 할 때 이거는 높이가 2,500인지를 그냥 뛰여러 가지가 왔다 갔다 해요. 서류 만들 때 너무 그 구체적으로 너무 성의가 없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 그다음에 그 마감에 대한 부분도 **으로 표현을 했는데 오히려 이게 지금 어두운 부분은 은근 아마 물갈기가 됐어야 할 정도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좀 정확하게 표현이 된 건지 그것도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그리고 작품이 좀 그래픽 상으로도 좀 강하게 좀 표현이 된 것 같아요. 실제 크기는 작는데 비해서 그림상은 꽤 큰 것처럼 지금 표현이 좀 돼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아쉽습니다. 첫 번째나 두 번째나 항상 이 주기란에다가 재질을 바꿀 수 있다라는 내용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그 도서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지 좀 우려스럽습니다.

○○○

진부한 형태를 가지고 작품을 하겠다라고 마음 먹었을 때는 그 진부함을 넘어서는 뭔가 좀 생경함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뭐 이거는 사실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가격 때문에 뭐 이렇게 됐다라고, 가격에 의해서 작품성을 보장받을 수 없는 거고요. 뭐, 사실 뭐 그 가격에 맞는 작품이 좋은 작품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뭐 하트라는 그 형상을 넘어서지 못하는 형상성 때문에 아마 그런 지적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시 또 의견 주시죠.

○○○ 지금 사전심의를 이렇게 보면 다 공통적으로 ‘지루하다. 아마추어 같다. 단순하다.’ 뭐 지금 가장 많은 지적을 받은 작품인 것 같아요. 좀 성의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 전국에 보면 하트 조형물이 되게 많고요. 하트 조형물이 되게 많은데 이런 포토존이 특히 많고, 의자 형태로 된 하트 조형물이 많아요. 근데 하트는 사실 그렇게 진부하고 조금 식상해요. 그렇지만 또 거기 가서 사진 찍고 뭐 하고 할 때는 또 1등으로 가서 찍는 사람들이 또 많아요. 그래서 저게 어쩔 수가 없는, 하트는 어쩔 수가 없는 건데 그래도 이걸 가지고 저렇게 또 나름 이렇게 표현하고 돌이 뭐, 그냥 가격 대비해서 저는 뭐 크게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안전상에는 괜찮을까요?

○○○ 근데 이게 큰 문제점이 하나 있는 게요.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저 높이가 2m 50이예요? 4m예요? 대답을 할 수 있는 분이 계신가요? 왜냐하면 정면도에서는 2,500으로 나와 있고 우측면도에 보면 똑같이 4,000으로 나와 있거든요. 4m가 나와 있고, 저게 왜냐하면 큰 오류가 있으면 저게 큰 문제거든요, 나중에 설치해놓고 나서요.

사회자 예, 그러면 관계자...

○○○ 그러니까 심의도서 자체가 잘못됐네요.

○○○ 예, 심의도서가 잘못 되어 있어요.

○○○ 그러니까 이 하여튼, 이거는 아까 1번도 그렇고, 2번도 그렇고 심의도

서 자체가 잘못돼 있네요.

○○○ 음, 맞아요. 선생님 한번 오셨으니까 여쭙보겠습니다. 이게 정면도에 보면 높이가 2,500으로 나와 있고, 우측면도에 보면 높이가 4,000으로 나와 있는데 왜 그렇게 표기를 하셨는지요?

관계자1 네, 4,000이 맞습니다. 저거 뭐, 배면도 지금...

○○○ 이게 배면도에서 2,500 나와 있고, 그다음에 좌측면도에 4,000으로 가는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 2500 4000이랑 다 섞여있어요.

○○○ 저거는 굉장히 심각한 일이거든요. 그렇죠?

○○○ 뭘 하겠다, 하겠다가 아니라 할 거를 갖다가 서류를 확실하게 만들어 가지고.

○○○ 이게 나중에 심의도서에서 뭐 이렇게... 물론 저희가 미술 장식품을 심의하는 거니까 이거 뭐, 이렇게 달을 보는 건 맞는데, 달을 가르치면 손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근데 문제는 작가가 2,500에 만들면 어떡할 거예요.

○○○ 예. 4,000으로 나와 있는데 2,500으로 만들었다가 ‘나는 우선 그렇게 만들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심의하는 분들은 어떻게 말씀하실지.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현장 상황에 따라 시공 방법 및 재질이 변경될 수 있다.’ 이런 주기를 다는 것 자체가

○○○ 자체가 그렇죠.

○○○ 그래서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심의대상에서 제외시키고요, 다음에 심의를 받는 걸로.

○○○ 예, 심의도서 다시 해서 올려야죠.

○○○ 왜냐하면 금방 말씀하셨듯이 현장 상황에 따라서 재료가 바뀌면 안 돼요. 재료는 일관되게 나와야 되거든요. 작품의 재료나, 베이스의 재료

가 바뀌면 안 됩니다.

○○○ 예, 앞에서 답변 주신 선생님. 그 이 도서에 있는 숫자를 검토를 해보면 2,500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4,000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 작품이거든요. 근데 답변을 4,000으로 주셨다고 하는 것은 이 작품을 제시하시면서 작품의 크기조차도 확인을 안 하시고 지금 제출했다는 뜻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좌측면도를 우측에 있는 800, 720, 720, 740을 다 합쳐도 4,000이 안 됩니다. 결과적으로 좌측에 있는 2,500은 가능성이 있는 숫자고요. 우측에 있는 4,000은 가능성이 없는 숫자가 되는 거죠. 근데 발표하러 오신 분께서 4,000이라고 제시하셨다는 것 자체가 앞에서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심의를 진행할 수 없는 수준의 상황이 아닌가라는 판단이 저는 듭니다.

○○○ 아니요. 그리고 다음에 첨언을 드리지만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작품 설치를 할 때 상황에 따라서 작품 현장에 따라서 작품 재질이 변하면 안 돼요.

○○○ 그렇죠.

○○○ 그거는 쓰지 마세요.

관계자1 네, 알겠습니다.

○○○ 예. 그거는 왜냐면 나중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그런 문구입니다.

○○○ 지반은 할 수는 있지만 재료는 자체가 바뀌면 안 돼요, 절대.

관계자1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관계자분께서는 이제 자리를 비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결정해야 될 일이라서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사실 자료를 받을 때, 문화기반과에서 받을 때 체크할 수도 없고, 이 많은 거를. 일단은 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부적격으로 제출했을 경우에는 사실 제출 받지 말

아야 되는 게 사실인데, 여기까지 올라와서 우리 심의위원님들이 아주 꼼꼼하게 봐주셔가지고 그나마 발견한 거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통과 되면 나중에 “나는 250이라고 했다. 도서 봐라.” 그리고 그냥 밀고 나가면 진짜 할 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좀 꼼꼼하게 봐주셔가지고 지금 이런 내용을 확인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점수를 매겨야죠. 예, 점수를 매겨주시기 바랍니다.

○○○ 작품 자체가 예술성에서도 지금 부족하다고 다 느끼시고 하니까 뭐 새로운 작품이 들어오면 더 좋을 수도 있죠.

위원장 사실 뭐, 결핍되거나 결격된 사유를 발견하고 지적하는 것조차도 심의의 내용이니까. 이제 충분히 다 인지하셨으니까 채점을 해주세요.

(채점 중)

2. 서구 불로동 검단지구 AA23BL

3) <Sweet Love is Superior 달콤한 사랑이 최고>

위원장 예, 다음으로 3번. <Sweet Love is Superior>에 대해 사회자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네, 3번 작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자, 위원님들. 살펴보신 내용을 토대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이 작품보다는 작품 구조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요. 어, 여기에도 표기가 조금 오류가 있는데요. 구조, 구조 보강용 골조 파이프가 100T에 300 ϕ 로 지금 돼 있어요. 이건 구할 수 없는 사이즈인데 어, 이 내용이 좀 상당히 좀 잘못된 내용이거든요. 음, 1T짜리에다 무슨 각관을 댄 것 같은데 이건 엄청 오류가 있어요. 이걸

만약에 10T로 한다고 그러면 아마 작품가액보다 더 이렇게 많은 금액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이제 저는 여기 조건부로 쓰여 있지만 베이스 플레이트 자체도 어차피 지금 모든 게 지금 서스이기 때문에, 베이스 플레이트 자체도 서스로 해야 된다는 내용을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 그 10T는 그 하트 모양 안에 그 구조물, 파이프 두께를 말하는 거죠?

○○○ 예, 예, 예. 10T는...

○○○ 사각 파이프 같은 건가요?

○○○ 10T는 나오지를 않습니다.

○○○ 그래서 이게 아마 심의에 부작용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단가가 무지하게 오른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무리하게 안에다가 집어넣거든요.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10T에 그거, 안 나와요, 파이프가 원래. 그리고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웰딩 하는 거나 할 때 이렇게 이것을 한 점을 지지면 보통 1톤을 견딘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위의 형태나 특징으로 봤을 때 안에 구조물을 굳이 안 대도 이거 충분히 견디거든요. 쓰러지지 않게. 그래서 저는 저 개인적으로 이 작가 시그니처 작품이 나왔는데 조금 뭐 이렇게... 이걸 참,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크기만 조금 조정하면 문제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 작품은 재밌는 것 같은데. 아이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고.

○○○ 아까 말씀하신 부분만 조건부로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 예, 골조 파이프에 관한 얘기 말씀하신 거죠?

○○○ 예, 그거 아까 10T... 예.

○○○ 관계자 들어오라고, 들어와서 뭐...

사회자 네, 관계자 오셨는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 관계자가 오셔야 되는 거는 필수는 아니죠?

사회자 네, 필수는 아닙니다.

위원장 자, 위원님. 질문 주시죠, 관계자분 들어오셨으니까.

○○○ 네, 구조 보강용 골조 파이프를 10T에 300φ로 설계를 했어요.

관계자2 네.

○○○ 맞습니까?

관계자2 네, 맞습니다.

○○○ 그런 치수가, 규격... 그런 규격 치수가 나오지 않는답니다.

관계자2 아, 이게 저희가 사전에 건축미술사의 컨설팅을 받아서 기초 설계랑 그 골조 설계한 건데 두께에 관해서는 제가 잘 몰라가지고. 제가 연락 좀 드려도 될까요?

○○○ 네.

○○○ 꼼꼼하지 않게 그냥 안일하게 그래픽을 만든 것 같기도 하네요. 근데 뭐 안일할 수도 있고 또 뭐, 불찰일 수도 있고.

○○○ 10T짜리는 안 써도 될 거예요.

관계자2 아, 작가님께 여쭙봤는데 이게 조형상 이렇게 구부러지게 일부러 미적인 요소로 이렇게 넣은 건데, 위로 올라올수록 얇아지는 두께를 쓰셨다고, 같은 두께로 쓰는 게 아니라 위로 올라갈수록 얇아진다고 하셨거든요.

○○○ 아니요, 우리는 지금 그걸 여쭙본 게 아니라 안에 들어가 있는 거, 혹시 09번 보면, 자료 보셨나요? 자료 보면 안에 들어가 있는 구조 보강용 골조 파이프가 10T, 이렇게 300φ라고 돼 있잖아요.

관계자2 네.

○○○ 저걸 문제를 삼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 내부에 들어가는 파이프 두께가 잘못 표기됐다는 거예요.

○○○ 그래서 저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 저렇게 표시를 했나.

○○○ 그런 규격에 제품이 없다는 거죠.

○○○ 그냥 파이프로 그냥 올려서 내면... 10T로 그 ϕ 에 300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관계자2 네.

○○○ 그래서 파이프는 그냥 통 파이프라고 보면...

○○○ 파이프를 변경안으로 만들면 될 것 같아요, 내부에 들어가는 거니까.

○○○ 전체 조형물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게 좋을 것 같고.

위원장 네, 됐습니다. 이제 관계자분께서는 나가셔도 됩니다.

관계자2 아, 네.

위원장 예, 예. 다시 그 현장 뷰, 한번 보여주시죠. 예, 이거 보여주셔서 평가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많은 논의거리가 있는 작품은 아닌 것 같고요. 뭐, 좀 진부하고 상투적인 형상이래도 그거 가지고 또 어떻게 조형화시키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채점 중)

○○○ 평가하고 계시는데 이런 말씀 드려서 좀 그런데 미술 작품으로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침에도 제가 도넛 가게에 갔다 왔는데요. 그 도넛 가게에서 보는 거를 그대로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냥 어디, 어디인지 다들 예상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팝아트적인 요소가 들어가서 미술관에다가 아니면 도시에 그 젊은 친구들이 많이 몰려 있는 이러한 공원 같은 데다 이걸 설치한다고 그러면은 충분히 당위성이 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곳이 설치가 되는 위치가 아파트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아파트에서 상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이 작품에 대해서 편안하게 받아들일까에 대해서 주변과의 조화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하고 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든 작품이었습니다.

위원장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3. 부평구 부평동 179-1 외 2필지

4) <빛과 갯벌>

위원장 자, 그럼 다음 4번 <빛과 갯벌>에 대해서 사회자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예, 4번과 5번은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네, 위원님들 현재 작품,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이즈가 한 200호 되는 것 같아요.

○○○ 네, 200호 맞습니다.

○○○ 200호의 사이즈에 자재가 또 들어가서 어떤 회화적인 느낌이 저 물감하고 잘 어우러지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원근감이나 이런 것도 괜찮고.

○○○ 제 생각은 오히려 지금 전체적인 화면이 자개라든지, 지금 골드라든지, 이런 게 전체적인 화면을 베려놓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그림이 지금 무엇을 그리는지 저도 사실은 모르겠고, 뭘 표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바다의 물결에 비치는 걸 갖다가 그렇게

○○○ 그렇, 그렇겠죠. 예.

○○○ 그 자체가 여기서는 이질감이 좀 난다, 자개라든지. 그래서 지금 화면 자체가 사실 이거 뭘 그렸는지 맨 처음에 제가 이렇게 자료 받았을 때 ‘뭘 그렸는지?’ 라는 생각을.

- 사진의 퀄리티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 예, 그래서 ‘뭘 그렸지? 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재료는 자개 같은 거 쓰고, 골드 갖다가 쓰고, 아크릴 쓰고, 유화를 쓰고 했는데 이 혼합재료 자체가 이질감이 좀 많이 나고, 저는 이렇게 주제 표현이 명확치 못하듯이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금, 골드를 이렇게 쓰지 않고 좀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얇게 가게 저렇게 좀 전체적으로 이렇게 저기 했으면. 근데 너무 지금 재료 쓰는, 재료에 대한 감각, 쓰는 감각이 너무 좀 서투르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주제 표현이 무엇을 했지라는 주제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약하지 않나. 그래서 블루를 쓰는데 저거 블루가 오히려 색깔이 참 좋은데, 골드라든지 이 자개 때문에 오히려 골드를 식상하게 좀 해놓는 듯한 느낌이다. 그래서 작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음, 심의…
- 이 작가가 작품 활동을 좀 많이 하는 작가예요. 제가 작품을 이제 페어나 이런 데서 많이 봤는데
- 저는 잘 모르겠어요.
- 좀 봤는데 작품을, 작품을 여기가 이 사람이 몇 개를 했던데, 저번에 제가 한번 심의했을 때 들어왔던 작품이 들어왔었더라고요. 그때 부결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 실제로 보면 되게 묘하던데,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 그래요?
- 굉장히 느낌이 되게 신비롭고 묘했었어요.
- 아니, 그건 뭐 감상대로 나뉘이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게 좀 더 오히려 그냥 골드, 이런 게 좀 없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주제… 주제가 애매하다, 이런 생각을 좀.
- 제목이 구체적이어서 그렇지, 뭐 사실 어… 빛과 갯벌이라는 주제로

비추어 본다면 어떤 갯벌에 대한 일반적인 시각성을 그린 게 아니라 그것을 되게 이상화시키고 상상적으로 조금 더 미화시켰다라는 느낌은 듭니다, 제목 자체가.

○○○ 오히려 갯벌로 안 하고 그냥 빛과 바다 했으면 이해가 좀 빨랐을 것 같아요, 빛과 바다.

○○○ 근데 워낙 이 표현 자체가 몽환적인 걸 이분이, 여기 쪽 다른 작품을 보니까, 그런 식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사실 뭐, 다 각자의 의견에 따라 우리는 조금 더 뚜렷하고 뭔가 이미지가 이렇게 확실한 걸 원하는데 저 그림은 조금은 더 단순화되고, 몽환적이고 뭐 그런, 그런 시각으로 그린 게 아닌가, 그리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개는 일단 그분이 이제 빛을 묘사하기 위한 게 아니었을까, 반사되는. 그 우리 물이나 이런 데 봐서 그걸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사실, 제가 사실은 항상 저도 작품으로 이런 걸 받아보고 그랬지만 이 그림이라는 게 이렇게 켄러나 형태가 명확하지 않으면 참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의 이렇게 바라보시는 그대로 하시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각자의.

○○○ 네, 지금 의견 나오신 것들하고 이 작품 설명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갯벌이 보통 두 가지 양상을 보이잖아요. 물 빠진 상태와 물이 차 있는 상태. 근데 이분의 작품 설명을 들어보니까 물이 빠진 상태를 그린 것 같지는 않고요. 물이 들어왔을 때 반짝이는 걸 그렸다고 설명하는 거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물 빠진 상태의 갯벌은 아닌 것 같습니다.

○○○ 그래서 맨 처음에 제가 사진 받았을 때는 ‘이게 뭐지?’ 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그거 일단 봐서 이제 지금 보니, 지금 보면서 느낀 게 아, 이게 참 오히려 골드가 참 작품을 망쳤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 예, 그러니까.

○○○ 근데 저는 좀 이렇게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좀 아쉬운 건 이 설치 위치가 화장실 앞이에요. 또 이 화장실이 이제 장애인 경로이다 보니까 아마 반투명으로 아마 이제 그 문이 아마 표현된 것 같은데 그러면 작품을 감상하기에 거기에 서 있다라고 하면 서 있는 사람도 조금 애매 모호해지고, 좀 그렇지 않았습니까?

○○○ 오히려 외국에서 화장실에다가 작품을 놓는다고 사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작품이 놓이는 그 장소는 뭐, 자기 어떤 스타일이긴 하지만 화장실에서 갔다 나오면서 약간 힐링 되는 느낌도 받지 않을 수 있겠나하는 제 생각이고요.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있었고, 저도 그렇게 판 적이 있어요, 이 작품처럼.

○○○ 근데 이거는 아마 건물주가 그 그림 크기의 그림을 놓을 만한 공간을 찾다 보니까, 보통은 다 그렇게 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 예, 건물에 달긴 달아야 되는데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그 합당한 걸 찾다 보니까, 화장실 옆이지, 화장실을 겨냥한 건 아니죠.

○○○ 항상 이 그림을 걸 때는 그 지난번 이 작품은 지난번에도 그 설치 위치가 다 이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게 또 준공이 내일 모레예요. 12월 달에 사용 승인이다 보니까 분명히 공개공지에도 뭐 작품 설치할 만한 공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급조에서 좀 하지 않았나,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해요. 두 번째, 작품 자체도 위치는 아주 좀 부적합한 자리거든요. 어디를 봐도. 그러니까 작품을 걸기에는 작품이 너무 아깝다.

○○○ 근데 궁금한 게 아크릴이 외부에 있어도 되나요?

○○○ 아크릴이?

○○○ 예, 예. 이거 지금 재질이 아크릴인데.

○○○ 그러니까 표면으로 드러나도 되냐고요?

○○○ 보관상은 그런 문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 아, 진짜요? 아, 왜냐면 이게 화장실 앞이 아니라 사실 복도라고 돼 있는데 문이 없는 거가, 저는 이거 외부 같거든요.

○○○ 그래서 외부로 들어와서 승강장부터 이제 실내가 시작되는 거라서 외부로 이제 되는데 혹시나 재료 상에 문제는 없는 건지.

○○○ 재료에는 문제가 없어요.

○○○ 아, 근데 뭐, 저 지붕이나 천장이 있는 외부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없습니다, 예.

○○○ 액자를 했네요. 아크릴 액자가 있어서 아마 보호가 될 거라고.

○○○ 참고로 이게 유화라는 물감보다는 아크릴 물감이 훨씬 더 내구성이 좋습니다,

위원장 예. 자,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채점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 점 중)

3. 부평구 부평동 179-1 외 2필지

5) <염원>

위원장 네, 다음으로 5번 작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예, 5번 작품은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작가인가요? 다른 작가인가요?

사회자 다른 작가입니다.

위원장 아, 자개가 공통점이어서 혹시나 해서.

○○○ 이것도 첫 번째 작품과 같이 화장실 앞인가요?

○○○ 그렇지는 않은데 되게 이제 좁은 공간이죠.

○○○ 맞아요, 좁은 공간.

○○○ 1,500 그 폭의 복도로 이제, 문을 나와야 되는 부분이고 주차장에서 들어오는 쪽문이 있는 되게 좁은 공간에 지금 설치를 하게 돼 있어요.

○○○ 그나마 정각형이라서 조금 다행이다.

○○○ 그렇죠.

○○○ 과거에 이거 심의를 할 때 이 벽 사이즈 때문에 이 규격을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아마 그거에 대한 대비인 것 같습니다.

○○○ 작품은 무난한 것 같은데요. 뭐 크게 문제 되는 것도 없고, 완성도도 좋고.

○○○ 사실 우리나라 건축물 미술 작품의 규정 자체가, 사실 건축주들은 법으로 하라고 그러니까 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건축주들은 이 예술 작품이 설치되는 것에 대해서 별로 큰 관심이 없기 때문에 작품이 설치될 장소를 고려해서 설계를 한다거나 뭐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좀 시그니처와 같은 중요한 건물들 같은 데는 예술 작품과 설계가 같이 동시에 이루어져가지고 맞춤으로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많이 좀 상승효과가 있는데 저희들은 억지로 그림을 설치하려니까 ‘어디다 설치하지?’ 그러니까 설치 공간을 애초에 염두해두고 설계를 하지 않으니깐, 구겨 넣는 식으로 이렇게 되니까 사실은 작품이, 작품으로서의 효과를 마음껏 발휘하지 못하는 아주 고질적인 병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어떤 조각 작품 같은 경우도 설치할 데가 없어가지고 여기서 잘 걸렸다가 상가가 뭐 민원 넣으면 또 저리로 쫓겨났다가, 저 구석으로 갔다가. 건물만 봐도 저기 쫓겨 갔다가 겨우 설치했구나

라는 느낌을 주는 작품들이 많거든요. 회화도 좀 마찬가지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염두해 주시고 심의해 주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채점 중)

위원장 지금 아홉 작품 중에 다섯 작품을 했거든요. 여섯 번째 하기 전에 5분 간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략)

4. 미추홀구 학익2동 290-1번지 일대

6) <행복을 꿈꾸는 가족>

위원장 자, 다음으로 6번 <행복을 꿈꾸는 가족>에 대해 사회자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예, 6번 작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 어디에 설치되는지 한번 넘겨봐 주시죠. 지중등, 바닥등인가요?

○○○ 지중등.

위원장 예, 지중등. 네, 위원님. 얘기해 주시죠.

○○○ 슬라이스 형식의 작품을 하는 그 작가, 한국 작가를 아는데 이제 그 작가의 작품은 아닌 것 같고, 근데 연상될 정도로 굉장히 비슷하긴 해서 그래서 이제 좀 더 찾아는 봤는데 그 좀 비슷한 면도 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좀 답답하다는 느낌이 좀 조형적으로 들기는 합니다. 그리

고 형태가 뭐 가족이라고는 하는데 그것도 좀 많이 평이한 것 같고요. 조금 그런 아쉬움이 드는. 조형 작품, 독창성이라든가 이런 거가 좀 아쉬운 좀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장 네, 다른 의견도 주시죠.

○○○ 저는 아까 말씀하신 슬라이드 친 작가가 어떤 작가인지도 잘 알고 하는데 저는 조금 느낌을 틀리게 봤거든요. 그래서 애 같은 경우는 단면도 다 보이고 해서 그 사이사이에 색감으로 해서 그 작품하고는 분위기가 좀 틀리고요. 제가 볼 때는 좀 솔직히 이렇게 단란한 가족을 이렇게 푹푹 뭉쳐서 표현한 것 같아서 저는 좀 좋게 본 작품입니다.

○○○ 느낌이 좀 밝지 않아요? 밝은 것 같은데, 느낌이. 따뜻한 색감에다가.

○○○ 너무 하아서 색깔을 좀 가미한 것 같은데요, 초록하고.

○○○ 너무 하야면 다 진짜 봉대 같아가지고 색감이 드러나서 단차도 보이고, 저는 좀 좋게 봤습니다.

○○○ 저 스테인리스면 흰색도, 백색으로 색을 넣은 거죠?

○○○ 네.

○○○ 그 제가 보기에선 작품이 그래픽 상으로는 되게 커 보이는데요. 사람 대비 작품을 봤을 때. 근데 실질적인 높이는 2,500에 가로 사이즈는 1,20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엄청 이렇게 좀 작게 보여지는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 그런데 위치 자체도 좀 이렇게 메인에서 좀 벗어난 한쪽동에 좀 치우쳐서, 좀 그런 부분이 좀 아쉽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 아, 좀 존재감이 약간 떨어지는 것 같다, 말씀하시는 거죠?

○○○ 예, 예.

○○○ 좌대가 있으면 또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바닥에 그냥 바로 설치해가지고.

- 제가 잘 몰라서 여쭙보는데 그 이런 조각품들이 다 이제는 이렇게 매립돼서 풀하고 이렇게 같이 있게 많이 있는데 제가 항상 우려가 되는 건 그 옆… 지금 이 작품뿐만 아니라 모든 작품들이 이 잔디를 깎을 때 이게 손상이 안 되는지 나는 그게 제일 항상 이거 하면서 궁금했어요. 그런 건 괜찮나요?
- 네, 아무리 잘해봐도. 근데 그럴 여지가 있죠. 예, 잔디를 정리하는 데 조심은 하겠지만, 그분들이.
- 돌이 튈 수도 있고.
- 올라 있는 것보다는 항상 저렇게 돼 있는 작품을 지금 계속 심사할 때 저는 계속 머릿속에서 ‘그 잔디하고 그거를 어떻게 관리가 될까?’ 그게 제일 불안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 그건 아무래도 관리하는 데에서 하게 되니까 솔직히 주로… 솔직히 이제 또 이것을 어떤 대를 만들고 하면 이게 트로피같이 보이고
- 예, 그러니까.
- 또 너무 정형화 되다 보니까
- 글썽요, 그렇긴 하죠.
- 자연스럽게 하려고 하는데 이거 그 작품, 단지에 이렇게 작품이 있을 때 그거를 자르는 경비 아저씨 분들이 좀 조심해서 해주시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 음, 아니, 그래서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들이 꼭 이렇게 높이를 하지 않고 플랫하게 깔더라도 좀 안전한 그런 판이 그렇게 구분이 된 위에… 높이는 똑같죠. 그러니까 예.
- 바닥에요?
- 예, 보이는 게 바닥에 얹더라도 그런 것들이 있으면 이 풀 관리, 그게 손상이 안 되지 않을까. 이걸 저 혼자 해본 생각이예요.

- 네, 그런 걸 원할 때는 그렇게 했겠지만 오히려 또 자연스러운 걸 원할 때는 또 저렇게 풀하고 같이 있기를 원하는 작가도 있을 거예요.
- 그렇죠, 예.
- 근데 제가 그 인천시 공동주택 품질점검을 좀 해보면 그 의식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 아, 그래요?
- 그 예초를 할 때 **을 한다는 걸 입주민들도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작가가 이걸 설치하고 난 다음에 그런 부분에 주의를 해야된다고 하는 걸 인수인계를 한번 해 주신다고 하면은. 오히려 일반 주민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 아, 손상이 안 되게요?
- 근데 어쨌든, 저쨌든 부주의에 의해서 손상은 될 수가 있는데 옛날처럼 막 무지막지하게 이렇게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저도 항상 그게 우려가 돼서 얘기를 했는데, 저도 그런 얘기를 듣고 좀 깜짝 놀랐어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일반인들이 얘기하고,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 아파트 부녀회에서 관리를 해요. 제 개인적으로는 작품을 이제 오래전에 설치한 게 있었는데, 그 브론즈 색깔이 좀 진해졌다고 저기 연락이 왔어요, 인터넷에서 찾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공장을 연결을 시켜준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공장에서 다시 코팅하고, 다시 샌딩하고 해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관리를 하더라고요, 부녀회에서.
- 위원장 뭐, 또 다른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채점에 들어가겠습니다.

(채점 중)

5. 미추홀구 학익1동 220번지 일대

7) <에너지... 생동하는 생명체 SH25-01>

위원장 자, 사회자께서는 다음 7번 <에너지... 생동하는 생명체 SH25-01>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예, 7번과 8번은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 작품은 시원한 느낌... 되게 현대적이고 좋긴 한데, 대학교 1학년 때 보면 보통 저런 조형 작업을 하잖아요. 그 스티로폼이나 이런 거 가지고.

○○○ 네, 그래서 좋긴 한데 조금 뭔가, 조금 이렇게 뭔가 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위원장 네. 의견들 더 주시기 바랍니다.

○○○ 작품이 4m인데, 4m의 느낌이 나타나는 그래픽 사진이 없는 것 같아서 다 작게 보여가지고요. 사람이 있어도 그렇게 커 보이지 않고. 4m면은 밖에 야외에서는 그렇게 큰 크기는 아니지만. 이게 파이프로 연결된 건가요? 디테일을 보면.

○○○ 저쪽 끝이에요?

○○○ 예, 파이프로 쪽 연결해서. 보통 이런 드로잉들이 보통 컴퓨터 그래픽으로 드로잉을 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살짝 드는데 뭐 어쨌든 간에 뭐 드로잉 기구를 무엇을 썼든 간에 결과물로서 생경하게 나오면 괜찮은 거죠.

○○○ 저는 주변 환경하고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뭐 어떤 선적인 것도 잘 살지만, 공간도 선적으로 잘 표현도 했고 그리고 어떤 조명까

지 들어가니까 조금 세련돼 보인다고 생각은 했어요.

○○○ 예, 아주 단정해 보이기는 합니다. 단정하고, 깨끗해 보이고. 뭐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는 구조성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별로 지적할 사항도 없네요. 작품성을 좀 평가해 주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 아주 디테일을 보여주는 이미지는 없죠? 아주 가까이서 보는 이미지는 없는 것 같아요. 저게 보는 각도에 따라서 지면에 닿는 면적이 이렇게 넓게 보일 때가 있고, 이렇게 조금 보일 때가 있고 이런 거죠? 예. 또 다른 영상 같이 갑자기 보여가지고. 이것도 좌대 없이 그냥 지면에 바짝 붙은 것처럼 돼 있네요.

○○○ 이 두 작품은 작품을 위해서 공간을 할애한 것 같아서요.

○○○ 모든 우리 미술 작품들이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앞에서 봤던 작품들은 어떻게 보면 공간에서 이렇게 묶여 있는 그런 결로 보이는데, 이거는 처음서부터 같이 계획을 한 것 같습니다.

○○○ 예.

○○○ 사실 형상 자체는 뭐 이렇게 창의적인 형상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그걸 만들어내는 뭐 방법, 기법 같은 게 조금 뭐

○○○ 새로운.

○○○ 예, 새롭다고 볼 수 있죠. 형상은 이제 뭐 꽃씨의 형상이고, 과일의 씨 같은 형상이고. 두 번째 거는 뭐 우리 날리면서 놀았던 거. 이렇게 낙하 하면서 막 돌아가는 그 씨의 생각이 나는데.

○○○ 설화 같기도 하고요, 설화. 저게

위원장 네. 네, 7번에 대해서 일단 채점해 주시고요. 바로 8번 넘어가겠습니다.

(채점 중)

5. 미추홀구 학익1동 220번지 일대

8) <By the Wind>

위원장 예, 다음으로 8번 <By the Wind>에 대해서 사회자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예, 8번 작품은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 저도, 저는 이 작품을 좋게 봤는데요. 뭐 엄청난 조형성이거나 아니면 화려한 뭔가가 있지 않은데, 되게 단순한데, 그 공간과 참 잘 어울린다고 표현이 됐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좋게 봤습니다.

○○○ 저런 형상에 날아다니는 씨앗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크기가 조금 2억 정도면 약간 조금 작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제일 큰 건 높이가 4m고, 저렇게 앉아 있는, 여성이 앉아 있는 그 부분은 60cm 높이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뭐, 그 씨앗만 가지고 형상한 것 같지는 않고요. 토끼의 귀하고, 씨앗 부분하고 연결시켰다고 그러는데, 사실 전체 다가 씨앗의 형상으로 느껴지긴 합니다.

○○○ 저는 개수가 좀, 개수가 좀 아쉽다, 액수에 비해서. 그 누워 있는 한 군데 정도 더 있다든지. 그런 아쉬움이, 가격 대비에 비해서 좀

○○○ 맞아요.

○○○ 아니면 이렇게, 귀가 2개 이렇게 붙어있다든지.

○○○ 좀 떨어져 있는 것도 심심하고.

○○○ 그런 아쉬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가격 대비에 비해서 좀...

○○○ 빈약하다?

○○○ 예. 크기라든지, 개수라든지 이렇게 좀... 저 사각 공간의 배치, 조형적인 배치를 좀 고려를 했으면 해서 만약에 그 사각 공간에 조형적으로

배치했다면 한두 개 정도 더 들어가도 되고, 하나는 이파리 아까 말씀하신 게

○○○ 바닥에 누워 있는 뭐 있는데

○○○ 그렇죠, 그렇죠.

○○○ 만질 수 있게.

○○○ 예, 그래서 그 공간을 아예 조형물을 갖다가 같이 시민이 문화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든다든지

○○○ 그렇죠, 그렇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 그렇게 해서 이파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 더 넣는다든지. 그런 조형적인...

○○○ 그런 좀 아쉬움이 좀 있네요.

○○○ 그래도 이 작가는 이렇게 자기 작품을 연출할 수 있는 공간이 주어져서 좋네요, 이 작품.

○○○ 그러게요.

○○○ 네. 뭐 어떻게 보면 있는둥 마는둥 한 조형물이고, 흉물스럽지 않고.

○○○ 그리고 땅에도 하나 정도 살짝 묻혀가지고 이렇게 올라온다든지.

○○○ 그래서 이파리에서 사람이 앉을 수 있게끔, 뭐. 어쨌든 제 생각에는 이제 가격에, 가격 대비, 좀 약간 아쉽다.

위원장 네, 의견 나오셨으니까 이제 채점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점 중)

6. 중구 유동 5-5

9) <나의 봄>

위원장 예. 자, 오늘의 마지막 심의 작품입니다. 9번 <나의 봄>에 대해서 사회
자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9번 작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완전 실외가 아니라 약간 반 실
내에 설치되는 거죠?

○○○ 네.

○○○ 너무 많은 설명이 있는 것 같아요, 작품에서.

○○○ 아, 설명이요?

○○○ 예. 봄과, 인간과, 자연과, 동물의 조화, 하트 거기에 또 화려한 색깔.
설명을 좀 과다하게 이미지를 집어넣으려고 하지 않았나.

○○○ 사실 그림이나 조형물이나 아시겠지만, 작가분들께서는 아시겠지만 사
실 막 억지로 막 우연히 이렇게 형태는 절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나
름대로 끄끖거리고 나오죠. 뭐 그렇게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아
까도 초반전에 진부한 형태를 가지고 하는 작품들 그거랑 비교해 본다
면 그런 어리숙하거나 진부한 형태가 아니라는 점은 사실 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 오히려 더 현대적인 느낌이 나고 애들이 그냥 좋아할 것 같아요, 산뜻
하고. 색감도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 그전에는 뭐 다 흰색이니 뭐 다 천편일률적인 색깔이 많은데, 사실 색
깔 쓰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회화하는 사람이나, 조각하는 사
람이나. 그래서 기존에 설치된 작품도 보면 원래 조형, 원래 형상성이
원래 이런 형상성을 했던 작가인 것 같습니다.

○○○ 설명서를 읽어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간과
했을지 몰라도 이게 알루미늄 스테인리스 캐스팅이라고 했거든요. 근
데 스테인리스 캐스팅을 하면 그 물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스테인리

스 캐스팅을 잘 안 해줍니다, 돈도 무지하게 많이 들고. 그래서 조금
싼 뭐, 이렇게 알루미늄 캐스팅이나, 브론즈 캐스팅으로 가는데

○○○ 네.

○○○ 그러나 굉장히 단단하거든요. 그리고 재료 다루시는 분들도 있지만 근
데 굳이 이게 이제 그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심의의 폐해가 아닌
가. 캐스팅을 굳이... 그러니까 촌촌하게 안 되도 되거든요. 안전하거든
요, 캐스팅이라는 자체가. 이거야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래서 보면
일단은 작가로서는 굉장히 대단한 결심을 한 작가인 것 같아요, 뭐 형
태나 색을 떠나서. 알루미늄 캐스팅, 여러분 보신 적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비싸서 안 하거든요, 국내에서는 작가들이 개인전 같은 거 할 때
도. 왜냐하면 단조로 해서, 중국 가서 단조 해갖고 이렇게 다 갈아서
이렇게 오는데 굉장히 참, 굉장히 진짜 오랜만에 보기 드물게 정말 스
테인리스 캐스팅을 한다면 굉장히 중요한 작품인 것 같아요. 보통 안
하거든요, 너무 비싸서.

○○○ 이 작품에 지금, 작품 크기를 좌대 사이즈로 이 크기를 좀 설명을 해
놨는데.

○○○ 아, 비싸서 그랬을 거예요. 가격 대비.

○○○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엄청 지금 작은 작품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
렇게 설치가 될 수 있을런지. 지금 좌대는 지금 통석으로 보여지는데,
통석 안에 지금 조명을 위한 또 천공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구조 각관
을 설치하기 위한 각 이제 천공을 해서 거기에 이제 파이프를 올려서
이 작품을 올린다고 지금 돼 있는데요. 이게 실현이 될까요?

○○○ 그러니까 이게 아마 의도는 이게 ‘통석이었다.’ 또 이렇게 좀 접근
하지 않을지. 혹시 여기 와 계신가요? 그다음에 건축물과의 조형도 이
건 필로티 내에 공개공지이기 때문에 이 천장 높이가 6m 이상 될 겁

니다. 근데 작품이 뭐 한 4m 50까지 올라간 것처럼 표현이 엄청 크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건축물의 공개공지는 높이를 6m 이상 해줘야 됩
니다. 이 조감도, 이게 지금 맞는 건지.

사회자

아, 지금 저기...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그 관계자분이 오시지 않았습
니다.

○○○ 그래서 뭐 이렇게 하신다라면 하시겠지만, 이 통돌에다가 이 지금...

○○○ 4분의 1조각 내겠죠, 뭐 통돌이면.

○○○ 4분의 1조각이라고 해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죠, 이게.

○○○ 이 원형을 맞춘다는 게. 이게 4분의 1조각으로 쪼개면, 만약에 이게 안
맞으면 그러면 전체를 또 다시 가공을 해야 해서

○○○ 단차 나고.

○○○ 그게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 통석이라고 어디에 나왔나요?

○○○ 아, 그렇게는 나와 있지 않은데.

○○○ 표시한대로...

○○○ 나와 있지 않은데 보면 이렇게...

○○○ 통석이라고 나와 있지는 않지만, 판석이라고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 응, 그래서 이 부분...

○○○ 왜냐하면 판석으로 구현되면 안에 이제 콘크리트가 표현이 될 텐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이거는..

○○○ 통석이 아닌 것 같은데요? 알루미늄 좌대라고 되어 있는데. 스테인리
스 스틸.

○○○ 알루미늄이에요, 이게?

○○○ 작품 재료, 제작 방법에 보면

○○○ 알루미늄 좌대 위에 스테인리스 캐스팅.

○○○ 알루미늄 판으로 하겠지. 통석으로는 그게 사이즈가 없잖아요.

○○○ 네.

○○○ 아니, 알루미늄 좌대라고 해도 지금 이러한 느낌을 내려면 알루미늄 좌대가 이런 느낌이 날 수가 있는 건가요? 힘들어 가지고.

○○○ 색깔은 낼 수 있겠죠.

○○○ 낼 수 있습니다.

○○○ 네. 왜냐하면 알루미늄을 음, 약품 처리해서 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녹을 내는 방식대로. 이렇게 똑같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 네, 통석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아니, 그 재료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알루미늄이라고.

○○○ 스테인리스 스틸, 두 가지로 하게. 우레탄 도장하고.

○○○ 사실 형상이나 색깔 이런 거는 사실 평이한 것을 벗어나 있고, 작가가 자기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어쨌든, 저쨌든 지금 건축물과의 조화에 대한 그림을 보면 그 작품이 엄청 과대하게 표현이 돼 있습니다.

○○○ 아, 크기가요?

○○○ 이게 몇이죠, 높이가?

○○○ 네, 3m 20이네요.

○○○ 3,280이예요, 총. 그 밑에까지 해가지고.

○○○ 3m 280이면 뭐 지금 그래픽 상으로는 크게 과장돼 보이지 않는데요.

○○○ 음,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공개공지의 그 법적 기준이 건축물 내에 들어가 있을 때는 높이 6m 이상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필로티 높이가 5m 이상 될 걸로 판단을 하는데.

○○○ 필로티 그래픽이 좀 낮아진 건가요?

○○○ 그렇죠. 이제 건축물이 낮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작품이 크게 보이게끔

하는 거죠.

○○○ 네, 뭐 천장이 낮아지면 작품이 크게 보이죠.

○○○ 네.

○○○ 그러니까 뭐 그래픽 상의 문제네요. 그러니까 필로티 높이.

○○○ 너무 과하게 표현 돼서요.

○○○ 구슬 같은 게 좀… 재질이

○○○ 스테인이겠죠. 스텐 구가 나와요. 많이 나오던데. 사이즈별로 다 나오
고.

위원장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채점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점 중)

위원장 채점 집계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휴식 시간을 갖겠습니다.

(채점 집계 중)

집계결과 발표 및 조건부, 권고 논의

위원장 자, 집계 나왔습니다. 집계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가결은 7건. 9건 중에 7건이고 3, 4, 5, 6, 7, 8, 9. 그리고 부결은 1, 2 두 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결된 사안 중에 3번과 8번에는 조건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건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3번에 조건부 여기 지금 기재된 거는요. ‘구조, 구조 연강, 구조 연강용 파이프, 실제 규격으로 적용되어야 함.’ 그리고 베이스 플레이트… 베이스 플레이트에 이걸 제가 지금 읽을 수가 없는데요

○○○ 아. 베이스 플레이트로 그...

○○○ 같은 재질로 했다는 거죠.

○○○ 네, 용접비가 다른 이질적인 재료를 쓰게 되면 우려되는 사항이거든요.

위원장 네, 네, 저기 기재해야 되니까 여기서 말씀해 주시면

○○○ 동일 재질로 사용.

서 기 이러면 되나요? 동일 재질 사용.

○○○ 네.

위원장 네, 3번, 파이프 두께 조정.

서 기 실제, 이렇게 적으면 되나요?

○○○ 네, 맞습니다. 구조 또는

위원장 기재 됐나요? 예, 다음 8번의 조건부 내용을 좀 알려드리면 처음 나온 게 ‘가격 대비 작품이 사람이 앓을 수 있게 좀 보강하면 좋을 듯하다.’ 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개수가 좀 늘어나야 된다는 거죠.

○○○ 예.

○○○ 뭐, 한 개 정도만 하면, 밑에 배치... 추가하면. 앓을 수 있는 사이즈로.

○○○ 그러니까 하나 정도 더 추가를 해주시면.

○○○ 그것도 이제 좌식용으로 디자인해가지고 좀 하나 더 추가.

서 기 추가라고 하면 되나요?

위원장 예.

서 기 이렇게 하면 되나요?

○○○ 직립용이 아니라 이제 약간 누워 있는.

○○○ 앓아 있는 그 작품 작은 거, 앓아 있는 거 있죠? 그런 거 하나 정도 같이 추가해서 매치를 하나 더 하면.

○○○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건 우리가 좀 작가한테

○○○ 그거는 작품의, 작품성까지 침해하는 건가요?

○○○ 네, 지금 그냥 워낙 조밀한 느낌이 없다 보니까 하나 정도 더
○○○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 그럼 본인이 알아서 눌히든지, 세우든지 조금 더 조밀한 느낌을
○○○ 그렇죠, 본인이 알아서 하겠죠.
○○○ 좀 더 풍성하게 한 개 추가, 이렇게.
○○○ 개수는 얘기는 하지 말고.
서 기 이렇게 쓸까요? 작품수 추가만 해요?
○○○ ‘개수 추가’ 하면 돼요.
서 기 이렇게 하면 되나요?
○○○ 네.
서 기 다 동의하시는 거죠?
위원장 아까 3번 다시 열어봐 주세요, 3번 조건부.
서 기 3번이요?
위원장 3번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다 동의해 주셔야 되니까. 3번의 내용,
조건부 내용.
서 기 아, 3번 조건부 내용이에요?
서 기 베이스 플레이트도 동일 재질, 괄호 열고 STS 사용. 이렇게 적었습니
다.
위원장 예, 그렇게 하면 될까요, 위원님들?

(“네.” 하는 위원들 있음)

위원장 네, 네, 네,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권고사항 작품은 없고요. 오늘 그러
면 총 9개 작품 중에… 8번도 아까 동의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

시는 바와 같이 가결 7점에 조건부 2점. 그리고 부결 1, 2번으로 결정
이 되었습니다.

자,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9건 중에서 가결 7건. 그리고
부결 2건. 그리고 조건부 2건으로 결과가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사봉 3타)

- 녹취 끝 -